

★초기 SNS 가제본 서평단 400% 달성, 84인의 선택★

★202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중소출판 지원사업 선정작★

『나 죽으러 갑니다』 – 죽음을 껴안고 쓴 삶의 연서(戀書)

”세 명의 청년이 재활병원에서 만나 **사지마비라는 운명과 싸우며** 서로를 통해 희망과 절망”



1. 책 기본 정보

• **제목** : **《나 죽으러 갑니다 – 노을지는 새벽을 그리며..》**
(영문 제목 : I'm Going to Die – Painting a Dawn at Sunset).

•**저자/출판사** : 이마엘 저, 스펙토리 출판사. 초판 1쇄는 2025년 9월 26일에 발행, ISBN은 979-11-982250-4-7(03810)이다.

• **장르** : 현대 한국 소설과 에세이를 섞은 **휴먼 드라마/리얼리즘 소설**. 작품은 실제 병원과 재활 환경을 배경으로 허구적 이야기와 저자 경험을 결합한다.

• **핵심 메시지** : 우리가 보통 사소하게 여기는 일상의 능력과 권리(숨쉬기, 먹기, 움직이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우며,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비추며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작품은 “기억은 오래, 자책은 짧게”라는 말처럼 죽은 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남은 자들이 살아낼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생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한 문장 요약 (엘리베이터 피치)

세 명의 청년이 재활병원에서 만나 사지마비라는 운명과 싸우며 서로를 통해 희망과 절망을 공유하고, 결국 한 친구가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를 찾아 자발적 죽음을 선택하는 여정과 나머지 두 사람이 삶의 싹을 틔우는 과정을 따라가는 휴먼 드라마.

인물 소개

• **백희** : “사라진 몸, 다시 움트는 숨결.” 손끝의 미세한 회복에서 삶을 붙잡는다.
• **하람** : “자유와 절망 사이의 끝없는 질문.” 마지막 자율로서의 선택을 고민한다.

• **시은** : "죽음 대신 삶을 다시 선택하다." 타인의 싸움을 보며 자신의 내일을 믿기 시작한다.

3단락 요약 (서론/전개/결말)

1. 서론 – 죽음의 전화와 병원의 정지된 시간 : 프롤로그에서 주인공 '희'는 오랜 친구 **하람**에게서 "스위스로 가기로 했어… 죽음의 버튼을 누르러 간다"는 전화를 받는다. 이어지는 1부 '정지'에서는 병원에서 사지마비 환자로 누워 있는 희의 일상을 보여준다. 관을 통해 약을 투여받고, 간호사의 손에 삶을 맡긴 희는 같은 병실 환자 **시은**과 다시 만난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와 연명 치료 속에서 '살아 있는 것인지, 그저 살아만 있는 것인지'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2. 전개 – 균열과 파편 : 2부 '균열'에서는 장애인으로서의 자립과 존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다. 희는 혼자 샤워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작은 상처 하나로 다시 침대에 엎드려야 하고, 샤워·식사 같은 행위가 **사치**임을 깨닫는다. '비극' 파트에서는 퇴원이 곧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아님을 강조하며 병원 밖에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제도적 지원 부족과 경제적 현실 때문에 더 큰 절망을 불러온다. 3부 '파편'에서는 각자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시은은 휠체어로 사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웃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희와 하람의 위로 속에 조금씩 마음을 연다. 하람은 간병인이 떠난 후 배설물에 뒤덮인 채 발견되며 존엄을 잃는 사건을 겪고, 이후 재활을 거부하며 죽음을 준비한다.

3. 결말 – 경계와 잔광 : 4부 '경계'에서는 하람이 스위스 디그니타스에 자발적 죽음을 신청하고, 상담사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냈지만 그것이 연기처럼 느껴졌다"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를 밝힌다. 디그니타스에서 보내온 편지는 "삶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존엄을 찾으려 오는 이들의 무게"를 이해한다고 답하며, 하람은 이 선택이 패배가 아니라 마지막 자율이라고 쓰고 떠난다. 에필로그에서는 남은 두 사람이 하람의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며, 휠체어 운전과 작은 집안일 같은 일상을 통해 삶의 싹을 틔우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삶은 스스로 불러와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긴다.

세부 줄거리 요약

프롤로그 — 극한 상황 속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던 청년 **하람**이 어느 날 친구 **희**에게 전화를 걸어 스위스로 간다고 통보한다. 그는 장애로 인해 "너희는 살아갔지만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며 **디그니타스**에서 죽음의 버튼을 누르려 한다는 말을 남긴다. 희는 얼어붙은 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과거를 회상한다.

1부. 정지 Stasis — 질병으로 전신마비가 된 희는 재활병원에서 침대 밖을 벗어나지 못하며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간다. 밥을 삼킬 수도 없고, 의술에 의존해 하루를 버티며 살아있는지 살아만 있는지 모르는 나날을 보낸다. 이런 삶 속에서도 새로운 만남, **시은을 만나게 된다.** 시은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여전히 "휠체어 타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 못하겠다"고 울분을 토한다. 두 사람은 작은 웃음과 불평 속에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동병상련을 느낀다.

2부. 균열 Fracture — 희는 스스로 샤워를 해보려다 넘어지고 상처를 입으면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깨닫는다. 간호사의 도움 없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일이 "사치"였음을 절감하고, 자신이 부모님 없이 홀로 독립을 지키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삶이 병원에서는 무너진다. 병원에서 열린 사회복귀 컨퍼런스에서는 주치의와 치료사들이 희의 신체적 회복을 평가하지만, 사회복지사는 "퇴원 후 삶은 제도도 사람도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전한다.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에서 희는 주거·식사·돌봄 서비스를 체크하며 홀로 살 집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제도적 복지의 한계를 절감한다.

3부. 파편 Shards — 세 파트로 나뉘어 각 인물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3-1. 틈 隙 — 시은의 이야기: 시은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웃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희와 하람의 배려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연다. 병원 친구들 사이에서 방귀와 재활을 두고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지만, 그 웃음은 체면을 감싸주는 연대이다. 시은은 "삶은 비참하지만 죽음보다 눈부시다"는 희의 말에 조금씩 희망을 배운다.

3-2. 틀 型 — 하람의 이야기: 밝고 활기찬 하람은 재활 의지가 강했지만, 어느 날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저귀가 넘쳐 배설물에 뒤덮이는 사건을 겪는다. 그를 돌보던 사람은 떠나고, 하람은 존엄을 상실한 채 무너진다. 이후 그는 운동을 거부하고, 자기 삶을 "죽음을 준비하는 재활"로 바꾸며 디그니타스에 지원한다. 디그니타스는 "삶이 견딜 수 없을 때 존엄을 찾으러 오는 이들을 돕는다"는 편지를 보내고, 하람의 의무기록을 검토해 절차를 안내한다. 그는 상담사에게 "나는 잘 사는 법을 연기했다… 웃는 것이 더 외로웠다"며 자신의 결정이 온전한 자율임을 밝히고, 죽음을 삶보다 덜 무서운 선택으로 여긴다.

3-3. 싹 芽 — 희의 이야기: 하람이 떠난 뒤 희는 휠체어 운전, 요리, 집안일 등을 하나씩 해내며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 그는 운전면허를 준비하고 경사로를 내려가며 "나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북돋는다. 하람과 연락이 끊기자 메시지로 "나 기능 붙었어.. 네가 내 기억 속에서 함께 걷는다고 생각할게"라는 말을 남긴다. 시은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보고 싶다는 희망을 얘기하고, 희는 "걷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다"고 격려한다.

4부. 경계 Threshold & 에필로그 잔광 — 하람은 스위스 취리히의 디그니타스에서 마지막 기록을 남긴다. 그는 **"이곳은 아무도 목표를 묻지 않고, 나라는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선택이 패배가 아닌 마지막 자율임을 강조한다. 한편 남은 이들은 슬픔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선택한다. 에필로그에서는 저자가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삶을 들여다보았고, 삶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죽음을 마주했다"면서 이 이야기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비추며 살아내려는 **역설의 기록**임을 밝힌다. 결국 작품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남겨진 이들이 서로의 빛이 되어 하루를 견디는 과정을 그린다.

책 속에서

"이곳에서는 감정조차도 눌러 꺼야만 산다. 살기 위해선 울지 않아야 한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_ p. 70

"옷을 벗기는 순간, 삽입되는 관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몸 위로 올라오는 타인의 손길, 설명 없는 진료, 함부로 다뤄지는 몸, 그 모든 순간마다 존엄은 하나씩 찢겨져 나갔다. 그리고, 깨달았다. 존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어떤 날은 목숨보다 지키기 어려웠고, 어떤 날은 밥보다 절실했다. 나는 그 존엄의 경계에서 매일 흔들렸다.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도 많았다. 그중 하나가 폐기처리 되어야 할 '삶'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한 끼의 식사, 입으로 삼키는 물 한 모금이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었다. 그렇게 시작되었다. 존엄을 향한, 작고도 위대한 싸움." _ p.84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렇지만, 삶은 불러야 온다.” _ p. 284

“전 죽음을 부른거에요, 삶보다.. 죽음을..” _ p. 327

“죽음은.. 가까이에서 보면 참 잔인한데..”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만들어.” _ p. 345

"통증을 없애기 위해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이건 치료일까 아니면 벌일까" _ p.45

"근데 무서워도 괜찮아요. 그냥, 무서운 채로 살아도 되거든요." _ p.281

"세상은요, 누구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걸 열고 들어가겠다는 사람한테만 조금씩 움직일 뿐이에요." _ p.204

출판사 서평

“나 죽으러 가, 내 몫까지 잘 살아..”
한 통의 전화로부터 건져 올린 가장 뜨거운 기록

누군가에겐 당연한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기적 같은 하루일 수 있습니다. 『나 죽으러 갑니다 — 노을 지는 새벽을 그리며』는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삶의 전부가 뒤집힌 세 청년의 병실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 반복되는 치료, 존엄을 갉아먹는 수치의 순간들
그럼에도 그들은 매일의 고통 속에서 다시 한 번 살아내고자 애썼습니다.
어떤 이는 절망 끝에 죽음을 택했고, 어떤 이는 눈부신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닥뜨릴 삶의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삶은 불러야 온다.”
이 책은 그 치열한 부름의 기록입니다.

읽는 동안 마음은 무겁고 때로는 힘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책장을 덮는 순간, 우리는 분명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숨, 오늘의 하루, 그리고 나의 존엄에 대하여.

서평

- “짧지만 오래 남는 문장들이 마음을 흔든다.”
-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견한 가장 빛나는 희망.”

- “죽음을 따라간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살아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 “철학적이면서도 따뜻하다. 무겁지만 위로가 되는 소설.”
- “책장을 덮고 한동안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내부 리뷰어 긴 서평 (총, 87명 중 7명 선발)

- 책을 읽는 동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였기에 '삶과 죽음, 그리고 존엄(사)'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희와 시은, 하람의 삶과 선택을 함께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람이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죽음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독자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이 작품을 통해 삶의 본질과 존엄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이 책은 다시 읽으면 새로운 시선에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같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흰 도화지에 스케치를 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에 선도 따고 색칠도 하면서 비로소 이 책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들의 발악으로. 그들의 일상으로. 내가 살고자 마음먹었다면, 이는 오만일까. 본 도서는 연신 우리에게 묻는다. 삶이란 무엇이냐고. 죽음이란 무엇이냐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긴 모든 것들은, 결국 ‘일반적인’의 사치였을지 모른다. 손끝을 스치는 종이의 감촉이 의식되면, 우리는 죽음과 삶 사이에 걸쳐있는 것이다. 삶의 주어가 자신이 아닌 순간, 그 삶은 존엄이 아닌 연명이 되니까. 그러니 그들의 이야기는 누군가 말하는 성장이 아니다. 스스로가 택한 존엄이며, 자의로 향하던 억겁의 시간이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권리는, 타인인 우리에게 없다. 그저 자책은 짧게. 기억은 오래. 자신의 존엄을 의식해야 할 뿐이다.

- 얼마 전 대학병원에 있어야 하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 대학병원 병동에 머물다가 뜻하지 않게 많은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고, 병동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며 게시판에 붙은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안내문을 보면서 자연스레 연명치료 거부, 존엄사 등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 평생을 선택에 기로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 삶과 죽음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택을 해야하는 우리들이다. 고통스럽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연명을 택한 사람과 이렇게 고통스럽게 연명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고통보다는 편안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술술 읽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책이고, 한 문장 한 문장 가슴에 새기면서 읽다 보니 완독하기에 시간이 꽤나 걸린 책이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또 건강함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책이다

- 스토리 전개가 짜임새가 좋고, 개개인의 형태, 마음, 다짐 같은 것들이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어 글로 읽으면서도 충분히 영상을 보는 듯 머릿속에 다 그려진다. 그만큼 글의 묘사가 너무 잘 되었다. 이마엘 작가님의 이 책에서 깊은 여운과 많은 생각을 하게 한 부분은, 이번 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살아내야만 하는 이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는 만큼의 내 노력? 죽음의 의미? 많은 질문들이 던져졌지만, 가장 고민하게 된 부분은 세 명 중 한 명인 하람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었다. 자신이 감당해온 무게, 고통 혹은 다 살아낸 몫을 내려놓고, 남은 이에게 삶의 의미를 부탁하는 행위, 본인의 삶을 온전히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생을 이어가라는 유언이기보다는 전언 같은, 자신의 존재를 전달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전달받고 남게 된 두 명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리고 하람의 선택은 정말 올바른 것이었을까?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보단, 그저 선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뒤엉켜 책을 쉽게 덮지 못했다.

끝으로, 우리는 모두 삶을 전달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우린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본적인 인간의 삶, 기본적인 삶에 대해 고민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견한 가장 빛나는 희망"

책을 읽고 여운이 가시지 않아 한동안 먹먹했습니다. 한순간에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이 매일 죽고 싶은 마음과 싸워내는 과정은 상상만으로도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 나아가는 주인공들을 보니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때때로 사소한 불편에도 불평하던 내가 부끄러웠고, 동시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삶은 완벽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인간의 힘을 믿고 싶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소중한 책입니다!

- 읽는 내내 마음이 참 복잡했다. 내가 주인공들이었다면 나는 안락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내 모습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 와식생활을 했을 때 이미 그 무가치함에 무너진 경험이 있다. 일어나서 앉는 것, 문을 열고 닫는 것 등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상생활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 이 친구들은 더 나아가 존엄까지 무너져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희망을 꿈꾼다. 몇 번을 포기하고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앞에서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인간은 참 강하고, 생명력이 질긴 존재라는 생각과 함께,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살았다고 했던 말이 너무 공감됐다. 죽지 못해 살아가다보니 어쩌다 살아졌고, 가끔은 행복했다. 그렇게 하루만 더 살아보자며 손을 맞잡고 눈물을 터뜨리게 하는 삶은 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일까.

- 책을 다 읽고나서 서문을 다시 읽었을 때. 어쩌면 작가의 경험담을 담은 소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주인공들처럼 힘든 시간과 절망을 겪고서도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아 이렇게 좋은 글을 쓴 작가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병원에서 짧게는 2주, 길게는 4~6주정도 입원해 위험한 상황을 넘긴 뒤에는 다른병원으로 전원을 가야하는데, 대기자들이 많아 입원가능한 병원도 많지 않아 대기를 걸어야 하는 현실.. 또한 돌봄서비스와 살 집도 쉽지 않았다. 되게 현실적이였다. 치료수가와 퇴원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까지 담긴 것이만약 이 책이 추측대로 작가님의 경험담이라면, 갑작스럽게 중증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의 감정부터 고충까지 정말 잘 담아낸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삶은 불러야지만 온다” 책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젊은 나이에 죽든, 자신의 수명을 다 살

고 죽든. 하지만 삶은 자신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누군가는 죽음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삶을 선택한 이 책의 결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참 역설적이게도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이 세계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선택을 하고있을 것이다.

- 처음 읽기 시작했을땐 솔직히 그만 두고 싶었다. 내가 감당 할 수 없는 책이라 생각했다. 책을 덮은 후 후폭풍이 두려웠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무언가가 나를 짓누를 것 같아서. 꾹 참고 읽었다. 점점 읽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에게 삶은 선택이 아니다. 세상에 동의없이 던져진 채 시작된 삶이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시작. 그렇다면 끝은? 마무리는?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가. 하늘의 뜻에,운명에 맡겨야 하는가. 나는 적어도 존엄사가 삶의 포기라고 해석되지 않길 바란다. 항복이라고 쉽게 치부되지 않길 바란다. 나약하다고 평가되지 않길 바란다. 누구도 타인의 삶을 평가할 수 없는거니까. 그저 그들의 결정이 존중되길 바란다. 그들의 삶이니까. 자신의 목숨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이니까. 그들의 멈춤을 우리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석 : 강점 3가지

1. 작품성 – 리얼리즘과 서정성의 균형 : 실제 재활병원과 장애인 복지제도의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도, 문장 곳곳에 시적 표현과 은유를 더해 **리얼리즘과 서정성의 균형**을 이룬다. 예를 들어 샤워 장면에서 “감각이 없다는 건 몸이 있어도 내 것이라 느낄 수 없다는 뜻”이라고 묘사하여 몸과 자아 사이의 단절을 표현한다.

2. 메시지 – 삶과 죽음의 복합적 의미를 탐구 : 작품은 연명과 존엄, 살아 있음과 살아간다는 것의 차이를 질문하며, 비단 ‘살아야 한다’는 일면적 메시지가 아닌 **자율적 죽음과 남은 자의 삶을 동시에 존중**한다. 디그니타스의 편지가 “삶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존엄을 찾으러 오는 이들을 이해한다”고 강조하는 대목은 작품이 편향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3. 독창성 – 한국 소설에서 드문 ‘조력적 죽음’ 서사 : 국내 작품에서 보기 드문 스위스 디그니타스의 조력적 자발적 죽음 절차를 소설의 중심 소재로 삼았다. 또한 세 명의 장애인이 서로에게 **친구이자 거울이 되는 이야기 구조**는 해외 작품과 달리 로맨스나 구원 서사가 아닌 **동병상련과 연대**를 중심에 둔다.

독자 타겟층 정의

• **연령대** :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의 성인 독자. 진지한 사회 문제와 인간 심리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적합하다.
• **취향·관심사** : 의료·복지 제도, 장애인의 삶, 죽음과 존엄,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관심이 있는 독자. 해외 작품《미 비포 유》나 김애란의《두근두근 내 인생》처럼 감정적이면서도 사회적 메시지를 지닌 작품을 선호하는 독자.
• **독서 습관** : 에세이와 소설을 넘나드는 서사를 즐기며, 한 권의 책에서 깊은 고민과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독자.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참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유사 장르/작품 비교

비교 작품	주요 내용	유사점/차이점

《미 비포 유》	사지마비 남성이 조력적 죽음을 선택하려는 이야기를 그리고, 간병인과의 사랑을 통해 삶의 가치를 묻는다.	두 작품 모두 **조력적 죽음**을 중심 소재로 하지만, 《미 비포 유》는 로맨스를 강조하는 반면 《나 죽으러 갑니다》는 **환자들 간의 연대와 자율성**에 초점을 둔다.
《1리터의 눈물》(키토 아야의 일기)	일본의 실제 환자가 퇴행성 질환과 싸우며 쓴 일기로, 병과 싸우는 인간의 존엄을 기록한다.	일상적 신체 기능의 상실과 감정의 기록이 유사하지만, 《나 죽으러 갑니다》는 허구적 서사와 실제 제도(디그니타스)를 결합해 **사회적 논쟁**을 포함한다.
《두근두근 내 인생》	희귀병을 앓는 소년과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그린 한국 소설.	모두 **병을 소재로 삶과 가족을 탐구**하지만, 《나 죽으러 갑니다》는 가족보다 **동료와 사회적 관계**를 중심에 두고, 조력적 죽음이라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다.

차별화 포인트 3가지

1. 세 인물의 다중 시점과 연대 – 한 명의 돌봄자와 환자의 관계로 좁혀지는 기존 작품과 달리, 세 명의 환자가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의 거울이 되는 이야기를 전개한다.

2. 조력적 자발적 죽음의 실제 절차 – 스위스 디그니타스의 편지와 상담 과정, 신청 절차 등 실제 정보를 서사 안에 녹여 국내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현실적으로 제시한다.

3. 제도적 한계와 복지 현실에 대한 비판 – 퇴원 이후 삶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상담 장면을 통해 병원 밖의 생활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며, **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부족**을 이야기의 중요한 축으로 삼는다.

숫자로 보는『나 죽으러 갑니다』

- 2025 중소출판사 성장부문 지원사업 선정 (금액 200만 원)
- 와디즈 기획전 펀딩 예정작
- 출간 & 유통 확장
  - 책 읽는 ACC 북페어 in Gwangju 최초 공개
- 독자 반응
  - 가제본 서평단 400% 달성 (독자 참여 폭발적)
  - 인스타 릴스 평균 저장률 8~10% (높은 공감·재방문율)
- 수상/공모 성과
  - 2025 중소출판사 성장부문 지원사업 선정 (금액 200만 원)
- 행사 초청 & 참가 (전작 & 차기작 전체)

- PPPXOZF Festival in Sungsu (2025. 07. 11 – 13)
- 제2회 북앤콘텐츠페어 초청 in Busan (2025. 08. 22 – 24)
- 책 읽는 ACC 북페어 선정 in Gwangju (2025. 09. 26 - 28) 예정
- 2025 파주페어 북앤컬처 한 권 마켓 선정 in paju (2025. 10. 26 - 28) 예정

홍보 자료 감성적 카피라이팅

1. “숨 쉬는 것조차 사치였던 그들에게, 오늘은 살아낼 이유가 될 수 있을까.”
2. “살아 있다는 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것.”
3. “누군가는 죽음을 택했고, 누군가는 싹을 틔웠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4. “기억은 오래, 자책은 짧게 – 남겨진 이들이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는 이야기.”
5. “삶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존엄을 찾는 마지막 장소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목소리.”
6.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을지는 새벽을 맞는다. 그 새벽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해시태그 리스트

• **국내 버전**: #나죽으러갑니다 #이마엘 #장애인재활 #조력사 #삶과죽음 #존엄한삶 #감동소설 #휴먼드라마 #한국소설 #삶의의미
• **해외버전(영문)**: #ImGoingToDie #LeeMael #assisteddeath #Dignitas #disabilityrights #lifeanddeath #humanDrama #KoreanFiction #dignity

저자·출판사

• **저자 이마엘**: 《제5의 세계》로 주목, **두 번째 장편**. 철학적 주제와 리얼리즘의 결합, 이마엘은 이야기로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다. GOODTV, CBS 등에서 해외 다큐멘터리 조연출로 활동하며 케냐·탄자니아 등지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현장을 기록했다. 또한 KBS·Apple·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소수자와 청소년의 현실을 이야기로 풀어왔다. 성인기에 희귀난치질환으로 전신 마비와 극심한 신경통을 겪으며 감각의 경계를 몸으로 통과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나 죽으러 갑니다』를 집필했다. 현재는 ‘존엄’, ‘감정’, ‘회복’을 주제로 한 후속 작품과 감정 기록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며, 청소년 독자와 감정 기반 독자층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첫 작품은『제5의 세계』이며, 차기작으로는『나 죽으러 갑니다_노을지는 새벽을 그리며』, 인문 대중 철학서『기수역』, 그리고 새로운 소설『구름의 아이(가제)』출간을 준비 중이다.

• **스펙토리** : 스펙토리(SPECTORY)는 스펙(Spec)과 스토리(Story)의 합성어로, 존재의 조건과 개인의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을 출판의 언어로 담아내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감정을 기억하는 출판사”를 표방하며, 존엄·생존·감각·관계에 대한 서사를 꾸준히 발굴한다. 첫 출간작『제5의 세계』를 비롯해, 감각과 존엄을 탐구하는 Between Life & Dignity, 감정적 실험과 언어 확장을 시도하는 Po;gue, 그리고 청소년 작가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담는 빛과 틈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임프린트와 라인을 운영한다. 스펙토리는 단순한 책의 제작을 넘어, 감정을 기록하고 존엄을 기억하는 출판을 지향한다.

📦 Upcoming Titles (기부 연대 프로젝트)

- 『제5의 세계』: 두 감각의 끝에서 시작된 찬란한 이야기.
- 『나 죽으러 갑니다_노을지는 새벽을 그리며』: 죽음과 존엄을 주제로 한 감각적 서사.
- 『기수역(가제)』: 인문 대중 철학서, 자본주의와 삶의 태도를 해석하는 새로운 사유의 지도.
- 『구름의 아이(가제)』: 구름과 물의 영속성 안에서 감각, 회복을 중심으로 한 신작 서사.

유통·메타데이터(서점용)

- **도서명**: 《나 죽으러 갑니다 – 노을지는 새벽을 그리며..》
- **저자/출판사**: 이마엘 / 스펙토리
- **발행일**: 2025-09-26
- **ISBN**: 979-11-982250-4-7 (03810)
- 판형/페이지수 : 124*188 / p382
- 가격: 18,500원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 소개

🌍 다섯 번째 물 연대 프로젝트는 단순히 문학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한다. 스펙토리는 물 문제 해결 기업 위시빌더와 함께 「다섯 번째 물 연대 프로젝트(The Fifth Water)」를 진행 중이다. “한 권의 책이 곧 한 사람의 식수”가 되는 이 프로젝트는, 책의 성과를 통해 얻은 감정과 기억이 다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문의 및 보도 연락처



Press Contact / 협업 문의

스펙토리 (SPECTORY)

담당 : 이마엘

E-mail : **ekgml31@icloud.com**

📌 『나 죽으러 갑니다』 관련 릴스 및 게시물은 인스타그램(@dlakdp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용 이미지, 작가 인터뷰 요청, 독립 서점 연계 마케팅도 별도 협의 가능.

📌 교보문고·알라딘 등 주요 서점에서 26일부터 예약 판매 시작